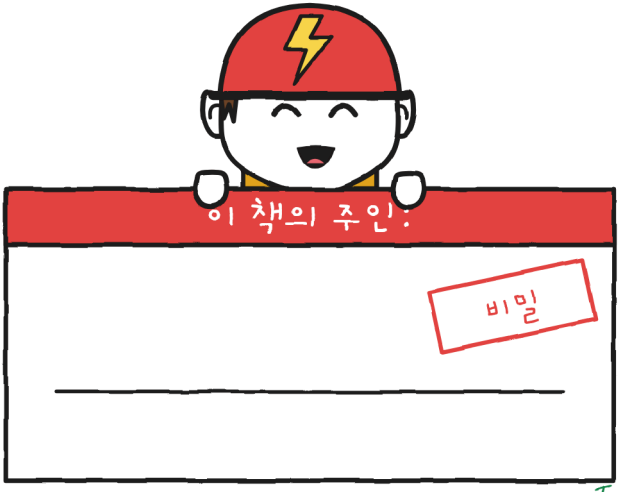


그리고 내가 먼저 읽는다. —J.

이걸 찾았다면 돌려줘. 부탁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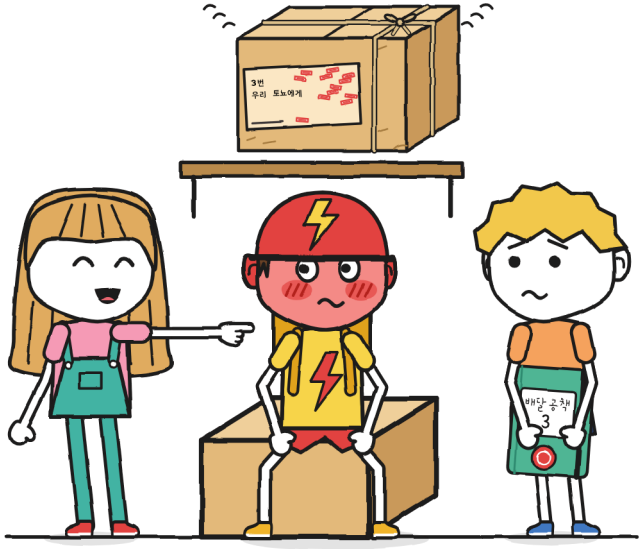
이야기 속에서만

이 도장은 이야기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을 표시해. 진짜 택배는 날아서 돌아오지 않아. 진짜 자전거를 탈 때는 마지막 쪽이 시키는 대로 해. —J.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LinguAula



(구니의 공책)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불가능 배달 · 3
반송 부탁해요

시리즈 세 번째 책. 앞선 책: ‘이 택배는 문다’, ‘천둥 치기 전엔 열지 마시오’.

글과 그림: LinguAula

한국어판: LinguAula

사이즈 XL · 삽화 소설 · 13+

초판: 2026

© 2026 LinguAula · info@linguaula.com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자유롭게 복사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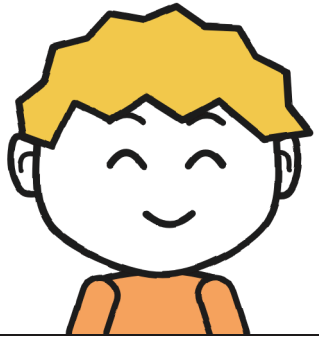
글꼴: Gowun Dodum, Gaegu, Nanum Pen Script, Nanum Gothic Coding, Andika, Patrick Hand, Caveat, Courier Prime (SIL OFL 라이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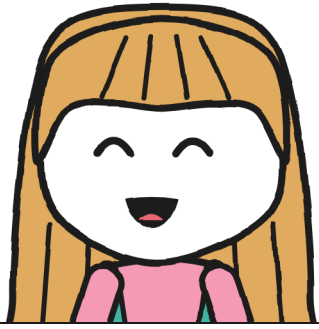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이 책을 쓰는 동안 다친 배달원은 없다. 얼굴이 빨개진 사람은 있다. —J.

등장인물



구니. 토요일마다 배달하는 아이. 아무도 시키지 않은 걸 그린다. 이 공책의 주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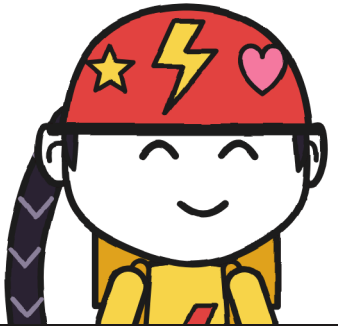
훌리타. 초록색으로 쓰고 J. 라고 서명한다. 도울 방법은 늘 안다. 그게 문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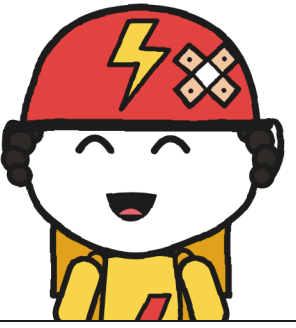
토뇨. 번개배송 배달원. 자전거로 배달한다.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 한 군데씩 빨개진다.



마라. 불가능 배달의 주인. 마녀 모자를 쓴다.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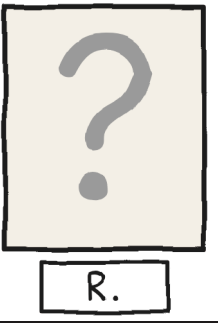
조이. 번개배송 배달원. 제일 빠르다. 별명을 붙여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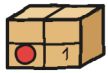
브루노. 번개배송 배달원. 펑크가 한 번 났다. 2년 전에.



3번 택배. 움직이면 소리가 난다. 라벨에는 이름 하나만 적혀 있다.



R.은 아무도 배달하지 못하는 택배를 보낸다. 아무도 그 이름을 말하지 않는다.



제1장

딸랑

딸랑.

아주 작은 소리였다. 다른 모든 것이 조용해졌을 때에야 들리는 소리. 찻잔에 찻숟가락이 닿는 소리, 장난감 자전거의 벨 소리 같은 것. 돌아온 택배를 두는 선반에서 났다. 마라 아줌마 가게에 남아 있던 우리 넷은 도장에서 불꽃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폭풍은 한참 전에 지나갔다. 훌리타는 아직 내 파란 걸상 위에 올라서서 초록색 매직펜을 치켜들고 있었다. 지워진 19 옆에 막 18을 써 넣은 참이었다. 마라 아줌마의 한 손은 셔터를 내리려다 중간에 멈춰 있었다. 나는, 제일 좋은 때에도 손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3번 택배였다. 그러자 10분 안에 못 오면 공짜인 번개배송 배달원 토뇨의 얼굴이 헬멧과 같은 색이 되었다.

공책은 새것이었다. 2권은 폭풍 한 번에 다 써 버렸다. 이번 것은 초록색이고, 한쪽 모서리에 가게 도장이 찍혀 있고, 첫 장은 내가 격식을 갖춰 쓰기로 했다. 첫 쪽에는 제목, 그리고 새로운 단어 하나.

배달 공책 3 • 주인: 구니. 비밀.

비밀이라는 건 내가 먼저 읽는다는 뜻이야. 그리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해. —J.

나는 혀를 내밀고 제목을 썼다. 삐뚤어졌을까 봐 지우개를 가지러 갔다. 돌아와 보니 훌리타가 벌써 내 첫 장을 써 놓았다.

"네 공책 첫 장, 내가 대신 써 줬어. 도와주려고." 훌리타가 말했다. "천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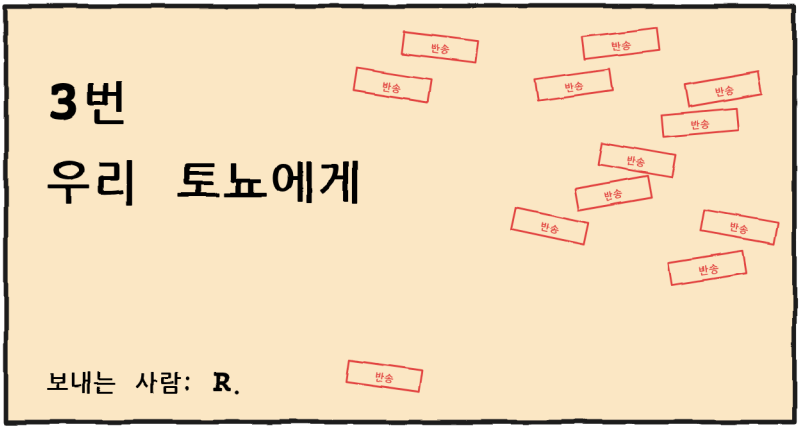
나는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 훌리타한테는 상관없다.

나머지는 혹시 훌리타가 아닌 누군가가 이걸 읽는 날을 위해 적어 둔다. 가게 이름은 불가능 배달이고 주인은 마라 아줌마다. 마라 아줌마는 마녀이고, 보라색 모자를 쓰고, 찍으면 꺼진 양초 냄새가 나는 불꽃이 튀는 도장을 갖고 있다. 왼쪽 선반에는 돌아온 택배를 둔다. 아무도 배달하지 못한 택배들이다. 규칙은 단 하나뿐이다. 받은 사람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라벨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 뜰 때 택배는 날아서 자기 선반으로 돌아간다. 저녁밥 시간에 딱 맞춰 오는 고양이처럼 정확하게. 원래 스무 개였고, 늘 같은 사람 R.이 보낸다. R.에 대해서는 파란 공책에 단서를 여섯 개 적어 두었다. 훌리타와 나는 두 개를 배달했다. 용의 알 하나, 그리고 달리는 다리가 달린 씨앗 몇 알. 벽에는 훌리타의 초록색 글씨로 남은 택배 18이라고 적혀 있다.

훌리타는 초록색 메모를 쓰는 아이다. 나는 구니, 동네에 새로 온 아이고, 내 물건은 거의 다 아직 상자 안에 있다. 그리고 토뇨는 번개배송 배달원, 노란 가방을 멘 아이다. 토요일마다 우리와 함께 벌을 받고 있고, 폭풍이 지난 뒤로는 가게에 자기 자리도 생겼다. 걸상들 옆에 뒤집어 놓은 배달

상자다. 마라 아줌마가 아무 설명 없이 놓아 주었다. “일단은.” 아줌마는 그렇게만 말했다. ‘일단은’이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감히 묻지 못했다.

3번 택배는 맨 위 선반에, 알과 씨앗이 비워 놓은 두 빈자리 옆에, 라벨이 앞쪽을 향한 채 놓여 있었다. 읽어 보려고 다가갔다. 선 채로, 손은 대지 않고.



타자기로 친 석 줄. 3번. 우리 토뇨에게. 그리고 맨 아래에, 보내는 사람: R. 이름과 마지막 줄 사이에는 하얀 종이 칸이 통째로 비어 있었다. 둘레에는 ‘반송’ 도장이 열두 개. 세어 보았다.

훌리타가 걸상에서 폴짝 내려와 내 옆에 섰다. 소리 내어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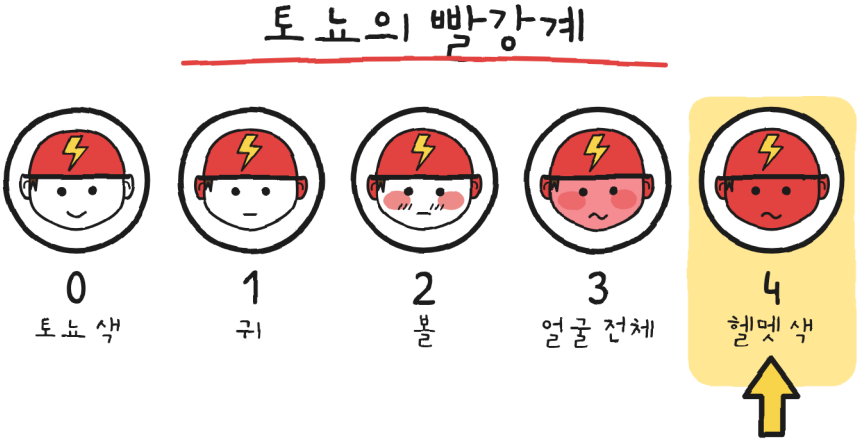
“우리 토...”

그리고 입을 다물었다.

훌리타는 낱말 중간에서 입을 다무는 법이 없다. 토뇨를 보고 이유를 알았다.

라벨을 반만 읽었다. 나머지 반은 삼켰다. —J.

갑자기 빨개지는 사람이 있다. 토뇨는 아니다. 토뇨는 부분부분 빨개진다. 귀부터 시작했다. 그다음엔 볼. 그러고는 얼굴 전체가 차올라서 헬멧 끈까지 닿았는데, 아직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아 있었다. 제일 나쁜 단계, 얼굴과 헬멧이 구분되지 않는 때다. 2번 택배 떨림계 이후로는 변하는 걸 눈금 없이 보는 법을 몰라서, 적어 두었다.



훌리타가 나머지를 읽으려고 택배 쪽으로 팔을 뻗었다.

"그 택배는 기다려도 돼요." 토뇨가 아주 빠르게 말했다. "몇 년째 기다렸잖아요? 하루 더 기다리면 되죠. 열흘이어도요. 번개배송은 안 급해요."

번개배송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처음 들었다.

"오늘 밤엔 아무것도 열지 않아." 마라 아줌마가 말했다. "그리고 선반은 허락 없이 손대지 않는다."

훌리타의 손이 라벨에서 손가락 하나 거리를 두고 허공에 멈췄다. 아무도 아무것도 만지지 않았다. 그러자 또 소리가 났다.

딸랑.

"문이 그랬어!" 훌리타가 내가 모르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높았고 너무 일렀다.

문은 베라 아줌마가 간 뒤로 줄곧 닫혀 있었다.

뭔가 이해가 안 될 때는 목록을 만든다. 딸랑 소리의 용의자:

1. 문. (훌리타의 의견. 닫혀 있고, 바람도 없고, 미는 사람도 없었음.)
2. 인도에 세워 둔 토뇨의 자전거, 번개배송 벨. ('따르릉' 하지 딸랑은 아니다. 그래도 벨이다.)
3. 고무 개구리. (훌리타가 곧바로 무죄를 선언했다. 개구리를 잘 안다고 한다.)
4. 3번 택배.

3번 택배는 예의상 맨 마지막에 넣었다.



나는 확인하러 인도로 나갔다. 가는 길에 개구리도 들고 갔다. 용의자는 멀리서 심문하는 게 아니니까.

비는 이미 그쳤다. 거리에서는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났고, 웅덩이마다 가로등이 하나씩 들어 있었다. 문을 열고 닫았다. 끼이익. 토뇨 자전거의 벨을 울렸다. 따르릉! 개구리를 눌렀다. 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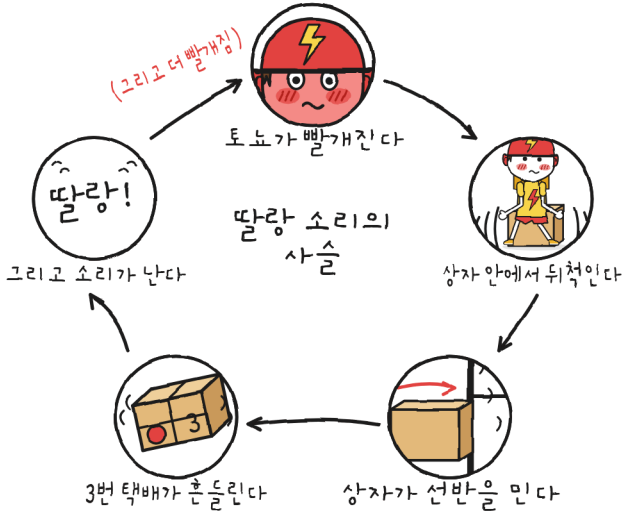
유리 건너편에서 훌리타가 손가락을 흔들며 아니라고 하고 있었다. 소리마다 똑같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동차 와이퍼처럼. 어느 것도 아니었다.

다시 들어가 개구리를 계산대에 놓았다. 내가 쳐다보는 걸 본 토뇨가 상자 안에서 몸을 뒤척였다.

딸랑.

나는 쭈그려 앉았다. 토뇨의 상자가 선반 다리에 기대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림을 그렸다. 동그라미가 나왔다. 아무리 돌려봐도 어디서 시작하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마법이 아니었다. 토뇨였다. 3번 택배 안에는 움직이면 소리가 나는 뭔가가 들어 있다.

나처럼. -J.

토뇨는 내 시선을 따라 선반 다리를 보았고, 자기 상자를 보았고, 가만히 있기로 했다.

고무줄을 팽팽히 당겨 놓은 시간만큼밖에 못 버텼다.

가만히. 그다음엔 더 가만히. 어찌나 가만히 있는지 '가만히' 하고 생각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고, 관자놀이를 따라 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훌리타는 1분 넘게 말을 안 하고 있었다. 훌리타에게는 물속에서 숨을 참는 것과 같은 일이라서, 언젠가는 입에서 제일 가까이 있던 말을 들고 수면 위로 올라오게 마련이다.

"우리 토뇨가 누구야?"

토뇨가 펄쩍 뛰었다. 상자가 다리를 밀었고, 선반이 흔들렸고, 3번 택배가 딸랑! 하고 울렸다. 어떤 딸랑도 받을 자격이 없는 세기로. 마라 아줌마는 셋까지 세는 사람처럼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냥 질문이었는데." 훌리타가 말했다. "질문은 선반을 안 밀어."

이번 건 밀었다.



"나였어." 토뇨가 자기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어릴 때."

너무 작은 소리여서, 나보다 토뇨 가까이 계산대에 있던 개구리가 더 잘 들었을 것이다.

훌리타가 입을 벌렸다. 질문들이 줄을 서 있는 게 보였다. 일요일 아침 빵집 앞처럼, 맨 앞 질문은 벌써 손에 돈을 쥐고. 그러다 훌리타는 토뇨를 보았고, 토뇨는 계속 운동화를 보고 있었고, 훌리타는 입을 다물었다.

"더는 안 물어볼게." 훌리타가 말했다.

힘들었을 것이다. 발에서 티가 났다. 탁, 탁, 탁, 가게 바닥에.

안 한 질문: 아홉 개. 다 적어 놨어. —J.

"그런데 왜 한 번도 전해 주지 않았어요?" 내가 마라 아줌마에게 물었다.

"열두 번 가져다줬어." 도장을 셀 필요는 없었다. "라벨을 봐. 길도 없고, 번지도 없고, 성도 없어. 찾을 수 있는 우리 토뇨는 다 시도해 봤지."

아줌마는 기억을 더듬어 손가락으로 하나씩 꼽았고, 나는 듣는 대로 그렸다. 진짜 이름이 토니토이고 라벨을 밟아 버린 카나리아 한 마리: 무효. 71세 안토니오 할아버지는 안경을 쓰고 라벨을 두 번 읽더니 "나도 그러고 싶구나." 하고는, 쇼윈도를 들여다보듯 택배를 바라보았다. 이름이 옆구리에 칠해진 운하의 작은 배도 서명하지 않았다. 손이 없으니까.



1. 카나리아 한 마리. (라벨을 밟았다. 안 된다.)
2. 안토니오 할아버지, 71세. ("나도 그러고 싶구나.")
3. 운하의 작은 배. (손이 없다.)

“그럼 토뇨는요?” 훌리타가 물었다.

“마지막으로 시도했을 때는 토뇨를 몰랐어.” 마라 아줌마가 토뇨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아무도 어릴 때 뭐라고 불렸는지 말해 주지 않았거든.”

마라 아줌마는 계산대 밑에서 보라색 천을 꺼내 3번 택배를 덮었다. 앵무새를 재우려고 새장을 덮듯이. 그러고는 토뇨에게 잠깐 일어나 달라고 하더니 토뇨의 상자를 선반에서 두 뼘 떼어 놓았다.

“이렇게. 이제 마음껏 움직여도 돼.”

토뇨는 가 버릴 수도 있었다. 문 앞에 자전거가 있었다. 10분이면 동네 반대편에 가 있었을 것이다. 토뇨는 다시 앉았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그래도 적어 둔다.

그리고 토뇨의 상자에는 등받이가 없어서, 하나 그려 주었다. 높고, 약간 굽고, 작은 쿠션이 달린 것으로, 연필로, 점선으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등받이 (내 생각)’.

아무도 너한테 등받이 그려 달라고 안 했어. —J.



문 닫을 시간, 토뇨는 맨 끝까지 남아 헬멧 끈을 채우고 있었다. 번개배송에서라면 중대한 위반일 만큼 느리게. 마라 아줌마는 불을 하나씩 끄고 있었다. 보라색 천은 맨 위 선반의 택배 위에 그대로 덮여 있었다.

“아줌마. 내일 그 얘기 하러 올게요. 우리끼리요.”

“얘네 둘은 가게 사람이야.” 마라 아줌마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토뇨는 우리를 보았다. 먼저 훌리타를, 그다음 나를. 나는 걸상에서 허리를 폈다.

"얘네는 괜찮아요." 토뇨가 말했다. "하지만 번개배송 사람은 안 돼요."

토뇨는 나가서 웅덩이 사이로 자전거를 끌고 멀어졌다.

딸랑 소리에는 이제 주인이 있었다. 주인이 그걸 원하는지는 아직 몰랐다.

토뇨를 어떻게 도울지 난 알아. —J.

그게 걱정이다.

한 이야기, 여섯 가지 사이즈

이 책에는 여섯 가지 사이즈가 있다. 3세부터 16세까지, 언어는 20개가 넘는다. XXS, XS, S, M, L은 같은 그림으로 이야기를 쪽마다 들려주는데, 갈수록 이야기가 더 섬세해진다. XL은 소설이다. 같은 이야기에, 구니가 생각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담을 자리가 있다.

CEFR 수준은 대략적인 기준입니다: XXS, pre-A1 · XS, A1 · S, A2 · M, B1 · L, B2 · XL, B2–C1.

각자 자기 사이즈로. 같은 딸랑. —J.

가족과 교사를 위한

linguaula.com에서 장마다 연습하세요
(L 사이즈의 활동 포함)